

- 주요 뉴스: ECB, 0.50%p 인상.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
 - 미국 11월 소매판매, 11개월래 최대폭 감소, 주간 고용지표는 견조한 노동시장 시사
 - 영란은행, 예상대로 0.50%p 인상.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한 것으로 판단
 - 중국 11월 소매판매, 예상치 큰 폭 하회, 산업생산도 증가세 둔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과 ECB의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5%], 달러화 강세[+0.8%],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의지, 경기침체 우려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2.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위험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1.7%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1월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등이 반영
 독일은 ECB 라가르드 총재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으로 5주래 최고치

※ 원/달러 1M NDF환율(1317.9원, +14.8원) 1.3% 상승, 한국 CDS 상승

		12/15일	12/14일	전일대비			12/14일	12/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95.8	3,995.3	-2.49%	국채 금리 10y	미국	3.45%	3.48%	-3bp
	유럽	429.91	442.51	-2.85%		독일	2.08%	1.94%	14bp
	중국	3,168.6	3,176.5	-0.25%		영국	3.24%	3.32%	-7bp
	일본	28,052	28,156	-0.37%	CDS 5y	한국	53bp	51bp	2bp
	한국	2,361.0	2,399.3	-1.60%		중국	74bp	70bp	4bp
	달러지수	104.61	103.77	0.81%	위험 지표	EMBI+	-	377	-
환율	유로화	1.0627	1.0682	-0.51%		VIX	22.83	21.14	7.99%
	엔화	137.79	135.48	-1.68%		WTI유	76.11	77.28	-1.51%
	위안화	6.9738	6.9501	-0.34%	원자재	구리	377.5	387.5	-2.58%
	원화	1,303.1	1,296.3	-0.52%		금	1,776.9	1,807.3	-1.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0.50%p 인상.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제시

- 통화정책회의에서 리파이낸싱 금리를 0.50%p 높은 2.50%로 결정하여 이전보다 금리인상 폭을 축소(0.75%p→0.50%p).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50%p 높여 2.00%와 2.75%로 인상. 한편 양적긴축은 내년 3월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만기도래 채권 재투자 축소 방식으로 시작할 방침
-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6.3%로 예상하여 9월(5.5%)에 비해 높였고, '24년 전망치도 상향(2.3%→3.4%). 반면, 경제성장률의 경우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0.9%→0.5%)했고, '24년 전망치는 보합 수준을 유지(1.9%→1.9%)
- 라가르드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 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것은 아니며 당분간 0.50%p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는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언급. 한편,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정점을 3.00%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의 전망(2.93%) 대비 높은 수준
-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내용을 매파적으로 해석했으며, 이에 주가는 큰 폭 하락 (Stoxx Europe 600, 429.2 -2.85%).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책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융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1월 소매판매, 11개월래 최대폭 감소. 주간 고용지표는 건조한 노동시장 시사

-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6% 줄어 전월(1.3%) 및 예상치(-0.2%) 하회. 13개 부문 가운데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9개 부문에서 감소했으며 식당 및 주점 부문 등에서는 증가. 이번 결과는 소비의 중심이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소비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
-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비수요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
- 한편 1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1.1만건으로 전주 대비 2만건 감소하여 9월 이후 최저. 이번 결과는 경기둔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양호하다는 신호로 평가

■ 영란은행, 예상대로 0.50%p 인상.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한 것으로 판단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0.50%p 높은 3.50%로 결정. 이는 14년래 최고 수준. 9명의 통화위원 가운데 6명이 0.50%p 인상을 지지. 베일리 총재는 10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이 10.70% 기록하면서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피력. 헌트 재무장관은 영란은행이 필요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영란은행은 일시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다고 해도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할 가능성(BlackRock의 Vivek Paul).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며, 이에 영란은행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소지(JPMorgan의 Karen Ward)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여타 국가와의 무역관계 확대할 방침

-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발언.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서방 국가들의 고립 작전에 맞설 것이라고 첨언

■ 중국 11월 소매판매, 예상치 큰 폭 하회. 산업생산도 증가세 둔화

-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5.9% 줄어 전월(-0.5%) 및 예상치(-3.7%) 대비 부진. 산업생산도 전년동월비 2.2% 늘었으나 전월(5.0%) 및 예상치(3.6%)에 비해 낮은 수준. 이번 결과는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에 기인. 당국은 향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추가 봉쇄 완화에 나설 가능성(GTJA의 Hao Zhou)

■ 중국 인민은행,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동결. 유동성 공급은 확대

- 1년 만기 MLF 금리를 2.75%로 유지. 이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이나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한편 연말 현금수요 확대를 대비하여 기존의 5000억위안과 신규 1500억위안 등 총 6500억위안 규모의 MLF를 공급. 당국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기대(MUFG의 Marco Sun)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13.8, 11월(-19.4), 예상치(-10.0)

■ 주요 경제 이벤트(12/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및 유로존 12월 S&P 글로벌 종합 PMI, 영국 11월 소매매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실제 금리인상, 점도표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 - WSI

(Fed's Walk May Be More Dovish Than Its Talk)

- 12월 FOMC에서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내년 0.75%p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1.00%p 혹은 그 이상의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 이는 이번 회의에서 통화긴축 중단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점과 대비
- 다만 작년 12월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에서 금년 0.75%p 인상을 예상했으나 실제와 크게 상이. 이는 연준의 전망이 반드시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년 0.50%p 인상 및 연말 금리인하 신호를 보내는데, 이는 매파적인 12월 FOMC의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을 반영

■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존 피해를 완전히 복원하기에는 미흡 - WSI

(Beijing's Pivot to Growth Comes Very Late)

- 성장세가 저하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시장 신뢰 제고 및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 소비와 산업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지도부가 친성장 기조 강화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
- 다만 중국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에 힘입어 주택시장과 소비가 회복되더라도 지난 3년간의 피해를 100% 복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 자국 및 다국적 기업의 정책 신뢰도 저하와 생산기지 이전 등도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초래

■ 일본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엔화 가치 하락 등이 원인 - 블룸버그

(Japan's Trade Gap Continues to Outsize Forecasts as Yen Weighs)

- 재무성에 따르면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2조엔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1.68조엔을 크게 상회. 수출이 8.8조엔으로 전년동월비 20%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이를 능가하는 10.8조엔으로 30% 증가한 데 기인
- 무역수지는 엔화 약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16개월째 적자가 지속. 11월 달러화 대비 평균 엔화 가치는 1년 전에 비해 28.5% 하락. 유가가 3월 고점 이후 40% 하락했지만 겨울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점이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
-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세에 있고 최근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무역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만,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약화 등은 수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신흥국 통화정책, 연준의 금리인상 폭 축소에도 금리인하는 어려울 소지 - Financial Times**
(Falling inflation and smaller rate rises in US give hope to emerging markets)

- 최근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금리인상 폭을 축소. 이에 신흥국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일정 수준 회복할 가능성. 다만 연준이 내년 금리인하에 나선다고 해도 신흥국도 금리인하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이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경기침체 우려를 의미하기 때문. 미국의 경기침체 도래 시 투자자들은 신흥국 주식 등 위험자산 매입에 소극적이며, 이는 신흥국에서의 자본유출 증가를 의미. 또한 신흥국은 수입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자국의 통화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적절

■ **중국 증시, 최근 반등에도 불확실성을 대비할 필요 - Financial Times**

(China stocks: party and funeral shares make a dissonant rally)

- 중국 증시는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자금유입도 증가. 특히 마오타이, 에어차이나 등 소비 및 여행 관련주가 급등한 점이 인상적. 한편 장례 서비스(Death care service) 부문 주가가 11월 이후 60% 급등
- 이는 중국 백신의 낮은 효율성을 감안할 때 사망자 확대 등으로 단기적인 증시 충격이 발생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특히 중국 투자상품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자본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사시 피해가 확산될 우려

■ **미국 금융시장의 내년 금리인하 기대 지속, 경기침체 회피 전망에 기인 - Financial Times**

(Markets don't believe Jay Powell)

■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및 공급망 개선,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연결 - 블룸버그**

(Cooling Economy Is Giving US Workers a L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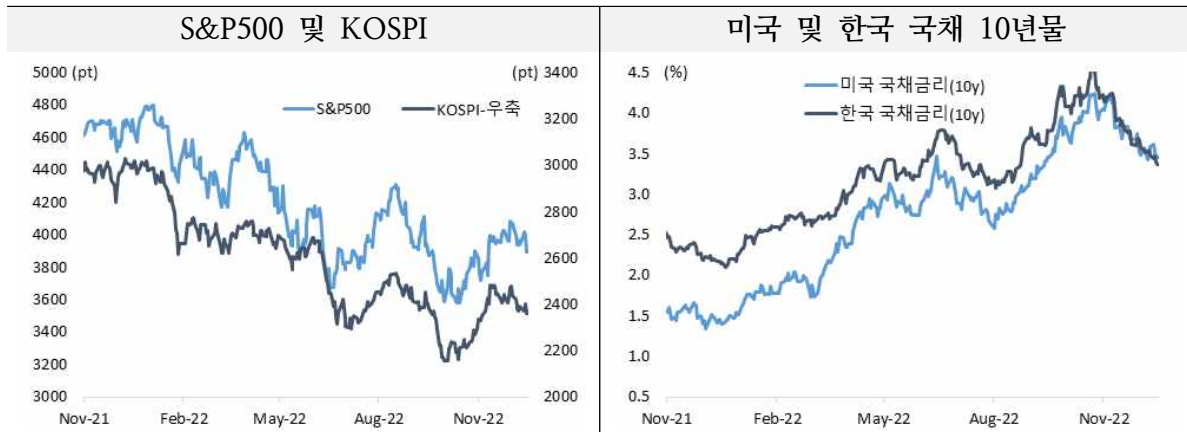
■ **미국의 정크본드 채무불이행, 양호한 기업 펀더멘탈 등으로 낮은 수준 유지 전망 - 블룸버그**

(Junk-Rated Bonds Just Aren't Behaving Like They Used To)

■ **유럽 정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보다 공급 확충 노력이 효과적 대응 - WSJ**

(Europe Can't Afford to Name Its Gas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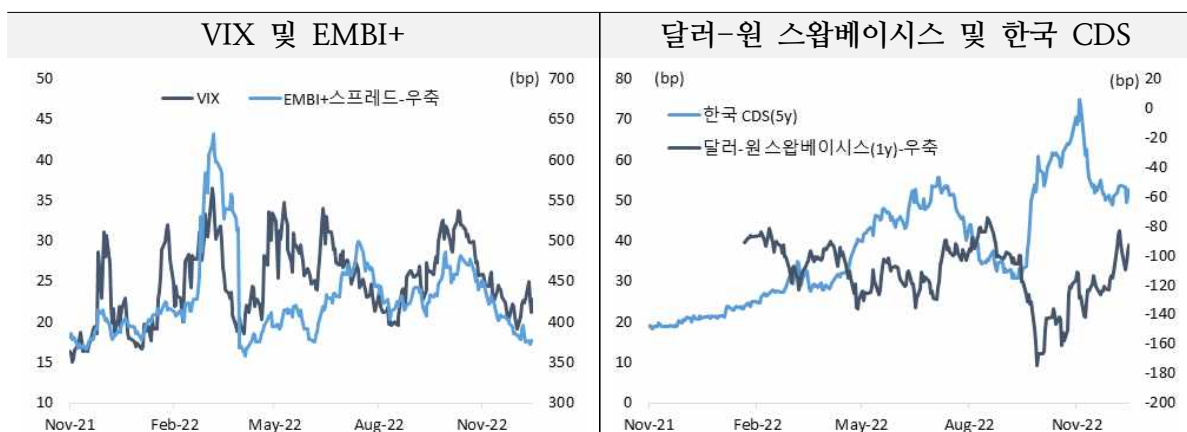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